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어"… 재심의 청구

〈감사원〉

감사원 일반직 전환 업무 지적
"동의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
지적된 46명 1995~2007년 채용
기간제 근무, 문제 없어 반박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지난 1년여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처리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무기계약직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시의 '노동 철학'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를 벌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보다 80명 더 많다.

이에 시는 "당시 공사는 이메일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본인이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보다 명확한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4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우선 감사원은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들 15명은 직접고용 계획이 알려진 2016년 6월 15일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해 직접 채용계획을 알 수 없었다"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6명을 탈락시키는 등 정당한 절차로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단지 공사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비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다"며 "단지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며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처분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력 3년 미만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이 된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반직 결원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다"고 못 박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

저축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신규참여자 3000명 약정식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3000명이 30일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매월 15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한 청년은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적립액 540만원을 합한 1080만원에 신한은행(협력은행)이 제공하는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통장 사업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5542명이 신청해 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청년통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재무컨설팅, 저명인사 초빙 희망특강, 워크숍, 커뮤니티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준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1000년전 귀주대첩 영광… 관악서 다시 한번

서울시 '제3회 관악 강감찬 축제'
5억200만원 투입, 3일간 진행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9 관악 강감찬 축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 관악구는 귀주대첩 승전 1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7~19일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제3회 관악 강감찬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비 3억원을 포함해 총 5억200만원이 투입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강감찬 장군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강'한 경제를 구축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통해 '찬'란한 문화가 꽃피우는 관악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악 강감찬 축제는 고려의 역사와 귀주대첩의 주역인 고려명장 강감찬 장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주대첩은 고려 현종 시기인 1019년 10만 거란군을 물리친 전투다.

축제가 열리는 3일간 낙성대 일대는 작은 고려도시로 변신한다. 용호군(고려 친위부대), 국자감(고려 국립교육기관), 시전(고려 대표 상업지역), 벽란도(국제 무역항) 등이 재현된다.

용호군에서는 활쏘기, 말타기 등 무(武) 체험 프로그램, 국자감에서는 강감찬 오행시 대회 등 문(文)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시전에서는 고려청자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벽란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구는 강감찬 장군 동상과 관악산을 배경으로 메인 무대를 구성했다. 천연목재로 만들어진 전통부스를 설치하고 봉화기와 오방기 등 고려전통 깃발을 걸어 기개 넘치는 고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야제가 열리는 17일에는 구민합창단 1000명의 공연과 귀주대첩 승전 기념 클래식 음악회, 미디어 파사드쇼, 북두칠성 레이저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개막일인 18일에는 강감찬 장군의 호국위업을 기리는 추모 제향과 별★별 연희마당, 개막식, 강감찬 별빛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6시 30분 낙성대공원 메인무대에서는 강감찬 일대기를 국악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19일 본 행사에서는 1019년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장군의 출병식과 거리퍼레이드, 판소리 역사토크쇼, 별★별 자치한마당 등이 열린다.

/김현정 기자

'소셜벤처허브' 문 연다… 원스톱 창업 지원

서울시는 10월 1일 역삼동에 소셜벤처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의 문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돌봄, 일자리, 주거, 환경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소셜벤처허브는 역삼동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3~4층에 연면적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창업공간(입주기업 개별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IT 테스트랩), 공유공간(세미나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4일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 "잠실일대 차량 통제"

개막식 차량 혼잡 여부에 따라
삼성역·봉은사역 교차로 통제 우회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진행되는 10월 4일 잠실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막식 행사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5분까지 열린다. 축하 행사로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오후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불꽃축제가 펼쳐진다.

행사로 인해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남에서 잠실운동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 여부에 따라 삼성역 교차로, 봉은사역 교차로에서 통제되거나 우회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에서 신천 IC 아래 한강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 탄력적으로 통제하거나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김현정 기자